

# 한말 일제의 대륙 진출과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이지영\*\*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말 일본군의 부산 및 진해만 점령
  - 1. 일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군용지 무단 점탈
  - 2. 통감부 주도의 군항 건설과 군항 경계 확장
- III. 진해만요새의 구축과정과 진해만요새사령부의 통제
  - 1. 러일전쟁기의 포대건설
  - 2. 진해만요새사령부의 주민 통제와 검열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러일전쟁에 임박한 일제가 대륙으로의 진출과 한반도 식민화를 목표로 부산 및 진해만을 요새화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는 러일전쟁을 대비하여 해상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 및 진해만 일대에 영구적인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군용지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존재하던 시

\* 본 논문은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 “일제강점기, 군사 요새로 변해버린 부산을 바로 보다”(2021년 10월 29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지건축 건축사사무소, 동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julie1220@naver.com](mailto:julie1220@naver.com)

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일의정서를 비롯하여 일제가 규정한 여러 조항 및 요령을 빌미로 군용지의 무단점거 및 점탈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국유지 및 관유지는 무상으로 영구 수용하고 가덕도 민가등급포 등을 통해 민유지는 강탈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진해만 군항 예정지를 일본 통감부의 주도하에 군항지를 조사, 군항 경계를 수립 계획하였다.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의 식민지화 및 대륙진출의 전초작업으로 ‘진해만요새’를 신설하였으며 그 산하의 외양포포대와 저도포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요새의 건설공사를 담당한 조직은 육군 축성부이다. 이들은 요새를 단기간에 건설하기 위해 ‘요새건설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설계요령서’를 제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대의 빠른 점령을 위해 요새화를 진행하였다. 러일전쟁이 임박하여 임시요새를 단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하는 업무 특성으로 제3임시축성단의 포대 건설공사 일체를 나카타니 히로키치(中谷廣吉)가 독점으로 청구받았으며 한국인 역부의 강제동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러일전쟁이 임박한 이 시기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존재함에도 군용지를 무단으로 점탈하고 각종 포대를 건설하는 등 부산 및 진해만 일대를 요새화하여 장악하였다.

주제어 : 일제강점기, 외양포, 저도, 군항, 군사시설, 축성부, 진해만요새사령부

## I. 머리말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 및 진해만은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최단거리 수송항으로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중시되어 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왜성이 축조되었고,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가장 먼저 개항하게 된 지역 역시 부산이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군사 전략적,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말 러시아와의 승전을 목표로 한 일제의 입장에서 대한해협을 사

이에 두고 태평양과 대륙을 동시에 장악하기 위해 부산 및 진해만 일대는 반드시 장악하여야 하는 지역이었다. 이에 러일전쟁을 대비한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무단 점거, 수용하여 포대를 건설하는 등 부산 및 진해만 일대의 요새화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러일전쟁 발발 직전의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한반도에 일본군 군사시설을 건설하여 요새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진해만 군항지 건설 과정에 일제의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과정과 더불어 러일전쟁을 대비한 포대 등 여러 군사시설을 어떻게 단기간 내에 건설하였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러일전쟁에 임박한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거점 확보를 위해 대한제국의 허가 없이 군용지를 무단 점거하고 강제 수용하는 과정 등 구체적인 군용지 점탈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군항지 선정과정 및 군항 경계 확정에 통감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하였음을 한국 내 공문서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일제가 대륙 진출을 위해 한말 부산 및 진해만 일대에 최초로 건설한 진해만요새<sup>1)</sup> 산하의 외양포 및 저도포대의 건설 배경 및 공사 주체인 축성부, 청부업자 및 한국인 강제 동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새 구축 이후 이 일대의 요새화를 위해 진해만요새사령부가 군사 기밀보호업무를 핑계로 주민을 통제하고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검열을 실시하는 등 식민지화를 진행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제는 경상남도의 일부와 부산부(釜山府) 부산항, 적기반도(赤崎半島)일대, 절영도, 거제도, 지심도, 진해, 진해만과 그 주변(兩岸) 및 마산을 포함하는 수륙 일대 구역을 ‘진해만요새지대’의 범위로 설정했다. ‘진해만요새’는 일본이 규정한 제국요새 명칭 중 하나로 부산 및 진해만에 건설된 포대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포대로 외양포포대, 저도포대, 장자등포대, 지심도포대, 절영도포대, 기장포대 등이 있다.

## Ⅱ. 한말 일본군의 부산 및 진해만 점령

### 1. 일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군용지 무단 점탈

부산 및 진해만은 예로부터 일본이 눈독 들였던 전략상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러일전쟁 당시 일제의 군사거점이 되는 요충지들은 대부분 임진왜란 당시의 격전지이거나 가덕도왜성 등 여러 왜성을 축조했던 지역이다. 이미 과거 조선과 수차례 전쟁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대의 군사요충지들을 일찌감치 파악한 일제는 전략적 거점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개항 이후 대륙에 대한 식민지 침략을 열망하던 일제는 1903년 12월 러시아와의 전쟁에 앞서 한국에 대한 침략방침을 확정하고, 일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군용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한 예로 「해군작전 제1계획(요령)」<sup>2)</sup>을 제정하여 해군 가근거지(假根據地)를 진해만에 설치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정황에 상관없이 우선 점령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로 나누어진 러시아의 군항을 연결하는 최단항로가 바로 대한해협이었기에 러일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이 지역의 선점이 최우선시된 것이다.

일제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1904년 2월 20일자로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서 정식으로 진해만 일대의 사용을 요청하는 공문<sup>3)</sup>을 발송한다. 이어 1904년 5월에는 「대한방침(對韓方針) 및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sup>4)</sup>을 결정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시설 건설을 합법화시켰다. 그 내용

2) JACAR, 「제1편 개전 전 일반 상황 및 개전(第1編 開戰前一般の狀況及び開戰)」, Ref.C05110031200

3) 일본외무성편, 「러일전쟁시 한국에서 제국의 군사경영의 건(日露戰役時 韓國에서 帝國의 軍事經營 一件)」, 관방기밀(官房機密) 제435호 (1904.02.20.)

4)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중 일부

“적의 침입로가 될 요지에 요새를 건설하고 국경 감시대를 주요 지점에 두며, 긴요한

을 보면 적을 러시아로 규정하고 쓰시마해협(對馬海峽), 즉 대한해협은 당시의 양국 해군이 치열한 격전을 펼치게 될 요지이므로 요새 건설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 무렵 이미 진해만에 군항 설치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4년 통감부 초대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협력 하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제4조의 “군략 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sup>5)</sup>에 의거하여 군용지를 무단으로 수용, 부산 및 진해만 일대에 영구적인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sup>6)</sup>

곧이어 1904년 8월 일본 육군대신이 육군성 군무국(軍務局) 군사과장 오카 이치노스케(岡市之助)에게 총8조의 군용지 조사요령<sup>7)</sup>을 하달하게 되며 그 중 제3조에 의거하여 통감부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일본 해군의 협력 하에 진해만, 영흥만을 군항화하기 위한 군용지 수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러일전쟁의 승전을 위해 군사거점 확보가 절실한 일제가 여러 조항들을 제정, 대한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군용지 수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

지점에 야전군을 위치시키고 京城에는 군사령부를 둘 것이며, 요새 상호간 및 야전군과 요새 소재지 사이의 교통기관을 정비하고, 대마해협을 장악하기 위하여 적당한 지점에 군항 및 요새를 건설할 것이며, 해군을 위한 저탄소를 증강 설치할 것”

- 5) 『한일의정서』 제4조, “第三國의侵害에由히며或은內亂을爲히야 大韓帝國 皇室의安寧과領土의保全에危險이有힐境遇에는 大日本帝國政府는速히臨機必要히措置를行함 이코이大韓帝國政府는右大日本帝國에行動을容易함을爲히야十分便宜를與힐事大日本帝國政府는前項目的을成就함을爲히야軍器上必要히地點을隨機取用함을得힐事”.
- 6) 이지영,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부산·진해만요새의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8쪽 참조.
- 7) 『군용지 조사요령』 중 일부 “3. 병영부지는 재래의 시가지와 떨어져 군대 생활에 필요한 일본인 부락을 구성하는데 충분한 여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 또 철도 부설지에 있는 정거장 근처일 것. 4. 총 부지의 평수는 힘써서 유리하게 수용할 것. 5. 병영부지 및 연병장은 토공작업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현재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을 것.”(김정명, 『조선주차군역사』, 日韓 外交資料集成別冊, 巖南堂書店, 1966, 251쪽).

일제의 군용지 수용은 한국의 국유지, 관유지, 학교부지 등은 『한일 의정서』에 의거, 무상으로 진행되었다. 사유지 및 민가 등의 수용은 토지수용과 매수금액은 일본주차군이 책정하여 지불하고, 군사령부로부터 의정부 탁지부의 내부에 교부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는 탁지부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배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일제가 탁지부에 보상금 전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토지를 수용당한 백성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토로할만한 창구도 없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sup>8)</sup>

사유지 및 민가의 토지 수용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가덕도 외양포의 경우 새로운 해군 가근거지를 설치하기 위해 1904년 8월 제3임시축성단의 파견 이전에 이미 토지 수용을 마쳤으나 그에 따른 토지 매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백성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와 관련한 『경상남북도래거안(慶尙南北道來去案)』<sup>10)</sup>의 문건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 1〉 가덕도 토지수용에 관련된  
『경상남북도래거안(慶尙南北道來去案)』 공문 내용

날 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1904. 07.05	웅천군수 권석구 (權錫九)	경상남도 관찰사 성기운 (成岐運)	경내 일본이 군용으로 범한 전답에 공유지(公土)는 없고 모두 민유지이므로 그 토지의 두락복수(斗數卜數) 및 매 두락(斗落)의 가치를 구별하여 내부에 보고한다.
1904. 08.09	웅천군수 권석구 (權錫九)	경상남도 관찰사 성기운 (成岐運)	일본의 병사가 가대(家垵)와 논, 밭, 무덤, 정원(田畚墓庭)을 점탈한 후 대포를 매복하고 터를 닦아 병영과 막사(營幕)를 건조하고 있다.

8)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118쪽.

9) 이지영, 위의 논문, 2021, 10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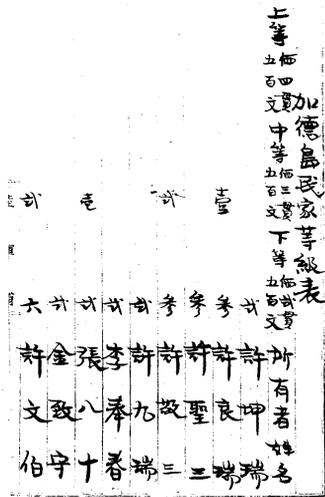
1904. 08.24	외부대신 이하영 (李夏榮)		일본영사가 점탈한 토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 줌에 있어 전토(田土)의 가치는 내부(內部)에서 획발(劃撥)하라.
1904. 08.26	웅천군수 권석구 외양리 존위(尊位)	외부대신 이하영 (李夏榮)	일본인 수십 명이 배에서 내려 민유전답(民有田畝)을 가리지 않고 표시를 세우고 경계를 정하며 가옥을 건축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조사하니 일본인의 수는 정확하지 않고 건축은 일본인(日民)의 거주가 아니라 일본군 주둔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점탈한 전답의 두수(斗數)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다.
1904. 10.11	경상남도 관찰사 성기운 (成岐運) 외양리 집강(執綱)	외부대신 이하영 (李夏榮)	일본군의 주둔으로 논, 밭 무덤(田畝墓)에 비용을 출급하였으나 백성들이 거주지를 잃고 농사 짓는 것도 없어 뿔뿔이 흩어져 세금인 호전(戶錢)을 상납할 수 없다.
1904. 11.19	외부대신 이하영 (李夏榮)	경상남도 관찰사 성기운 (成岐運)	백성의 환산(換散)은 별도로 타일러 안도하게 하고 결호세(結戶稅)는 내부(內部)에서 탁지부로 이조(移照)하게 하라.
1905. 05.27	창원감리 현학표 (玄學杓)	외부대신 이하영 (李夏榮)	작년 봄에 온 일본군이 군용지로 취한 후 주민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은 논과 밭 중에는 가격을 치르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제군수의 보고를 접하여 일본영사에 지조(知照)하였더니, 지금 일본과 러시아의 해전이 임박해 있으므로 저도 및 가덕도 부근을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까닭에 주민의 출입을 금하였다는 회답이 있었다. <sup>9)</sup>

<표1>을 보면 일제가 군용으로 논과 밭을 무단 점거하여 병영과 막사를 건축하며, 토지와 가옥 역시 무단으로 점탈, 하루아침에 퇴거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토지나 가옥에 대한 보상조치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궁핍한 상황이 잘

10) 『경상남북도래거안(慶尙南北道來去案)』,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진 백성을 별도로 타일러 안도시키라 명하면서, 러일전쟁을 방패로 삼아 군용지를 무단 수용하고 어업이 주 생계인 주민의 가덕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일제를 두둔하는 외부대신 이하영의 궁색한 답변은 대한제국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가덕도 외양포 및 저도의 경우 토지보상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4개월만인 1904년 12월에 포대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가옥 수용 및 한인퇴거 관련 공문은 1905년에 발송되었으며, 그 보상은 수년 후인 1907년 3월 8일에 이루어졌다.<sup>11)</sup> 가덕도 및 저도의 경우 해당 지역의 민가를 등급화하여 가옥의 소유주와 등급, 칸수 및 가격<sup>12)</sup>을 기록한 민가등급표(民家等級表)<sup>13)</sup>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가덕도 민가등급표 중 일부

(출처: 한주병 제126호(1905.03.10.))

1905년 3월 10일 한국주차군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보고서 『한주병(韓駐丙) 제126호』에

11)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106쪽.  
 12) 민가등급표에 기록된 주택의 가격은 상등(上等), 중등(中等), 하등(下等)으로 구분되어지며, 외양포와 저도의 경우 상등은 4관 500문(伍四貫五百文, 4圓50錢), 중등은 3관 500문(伍三貫五百文, 3圓50錢), 하등은 2관 500문(伍貳貫五百文, 2圓50錢)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일본외무성편, 『러일전쟁시 한국에서 제국의 군사경영의 건(日露戰役時 韓國에서帝國의軍事經營一件)』, 1906. 문서번호 □□□ 제2755호, 1905.03.31. 韓駐丙 제126호(韓國駐節軍司令官 長谷川好道, 1905.3.10.)

의하면 가덕도 및 인근 저도의 한인 퇴거를 위해 이 일대의 물정에 훗날 재마산포영사(在馬山浦領事)가 민가등급표를 작성하여 가옥의 등급 및 소유자 성명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표에 의해 가옥 및 전답을 빠짐없이 수용하고 강제 퇴거시키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림 1>과 같이 작성된 민가등급표를 바탕으로 진해만요새 포병대 대장-한국주차군 사령관-육군대신-육군차관-외무차관의 승인을 얻어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행태를 보이지만 사실상 무단점탈과 다름없는 군용지 수용과 한인퇴거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1907년 3월 8일자 의정부 『(주본)奏本』<sup>14)</sup>의 가덕도 민유전답가옥(民有田畓家屋)의 3,832환 60전의 매수 내역서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주본』에 기록된 가덕도 군용지  
민유전답가옥가격(民有田畓家屋價)(1907.02.23)

구분	수 량	단 가	금 액
전(田)	1,003斗 30落	每斗落 2圓	2,006圓 60錢
답(畓)	276斗落	每斗落 6圓	1,656圓
가옥(家屋)	23戶 68間	每間 2圓 50錢	170圓
소계			3,832圓 60錢

<표2>에 나타나는 ‘가옥’의 경우 23호(戶)에 칸수가 68칸(間)으로 기록되고, 그 책정단가는 민가등급표 상의 가장 낮은 등급인 하등의 가격 즉, 매 칸당 2환 50전을 계산하여 170환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905년 3월 10일의 가덕도 민가등급표와는 전혀 다른 매수금액인 것이다. 재마산포영사가 작성한 민가등급표에서는 실제 거주 주민이 가덕

14) 『주본(奏本)』, 『웅천군 가덕도 군용지 민유전답가옥의 가격 3,832圓 60錢을 예비금(豫備金)에서 지출하는 건』(1907.03.08.)

도 64호, 제3임시축성단장의 『육기밀대일기(陸機密大日記)』에서는 외양포 약 70호로 큰 오차 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실제 거주 주민의 호수는 64~70호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의정부 문건에 나타나는 23호의 주민을 유추해보면 이미 일본군이 거주하거나 농사짓던 토지를 무단 수용한 상태에서 한인 퇴거까지 진행되어 생업을 잃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수년 동안 지연되었던 보상으로 인해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1907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호수(戶數)가 약 23세대에 불과했으리라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가덕도 및 저도의 토지 보상을 정리해보면 일제가 조사, 정리한 민가등급표에 정확한 가옥 소유자 성명과 가옥의 칸 수 및 매 칸당 가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에 지급된 탁지부 보상금은 1905년 당시 일제가 책정한 금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것이다. 이처럼 토지 및 가옥 대금은 일제가 한국정부에 지불하되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였고, 이마저도 탁지부가 차후에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보상까지는 3년이나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토지매수를 가장한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하였으며 강압적인 점탈과 다름 없었다.<sup>15)</sup>

또 다른 사례로 국유지 및 관유지의 토지수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방위청 사료 중 진해만요새 토지 수용과 관련한 문건이 나타난다. 『밀대일기(密大日記)』<sup>16)</sup>의 「축성본부 진해만요새 용지 수용의 건(築城本部鎮海灣要塞用地収用の件)」<sup>17)</sup>은 「한일의정서」 제4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한국 진해만요새 방비 상 필요에 의해 한국 관유지

15)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106~115쪽 참조.

16)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에서 제공되는 일본 방위청 사료관의 자료 중 당시 육군성과 산하기관들에 의해 작성된 공문을 통칭하여 『밀대일기(密大日記)』라 칭한다.

17) JACAR, 「축성본부 진해만요새 용지 수용의 건(築城本部鎮海灣要塞用地収用の件)」, Ref.C03022985600. 1908년 12월 17일부터 1910년 5월 22일간 작성된 문건이다.

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본과 한국 측의 관련자 총 11명<sup>18)</sup>이 서명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덕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의 병산열도(竝山列島), 강서구 성북동 1474외 58필지의 견마도(牽馬島)에 대한 국유지, 관유지, 해군용지, 천성면의 학교부지, 민유지의 면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표 3〉 가덕도, 병산열도 및 견마도의 해군용지, 교유지, 민유지 면적 조사

구분	가덕도	병산열도	견마도	계(坪)	면적(m <sup>2</sup> )
국유지	3,954.280			3,954.280	13,072.000
관유지	10.285	64.500	30.553	105.338	348.225
소 계	3,964.565	64.500	30.553	4,059.618	13,420.225
해군용지	12.100			12.100	40.000
학교부지	241.395			241.395	798.000
민유지	1,060.868		1.815	1,062.683	3,512.850
소 계	7,929.13		61.106	7,990.236	4,350.850

이를 정리하면 <표 3>의 면적으로 국유지는 총 3,954.280평(13,072 m<sup>2</sup>), 관유지는 105.338평(348.225 m<sup>2</sup>), 해군용지 12.100평(40 m<sup>2</sup>), 학교부지(校有地) 241.395평(798 m<sup>2</sup>), 민유지 1,062.638평(3,512.85 m<sup>2</sup>)에 해당하는 토지가 무상으로 영구 수용되었다.<sup>19)</sup>

이처럼 일제가 무상으로 수용한 토지의 총 누계는 5,375.75평(17,771.075 m<sup>2</sup>)으로 가덕도 내의 민유지 및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

18) 『축성본부 진해만요새 용지 수용의 건(築城本部鎮海灣要塞用地収用の件)』에 나타난 작성자 11명 중 일본인 7명(臨時統監府總務長官事務取扱, 統監府參與官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築城部本部長 사카키바라 쇼조(榊原昇造)(1908.12.17), 築城部本部長 무라타 아즈시(村田 悳)(1909.08.10), 鎮海灣要塞司令部部員 마쓰다 다이조(増田大藏), 馬山浦財務署 統監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한국인 4명(太子少師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內部大臣 박계순(朴齊純), 慶尚南道觀察使韓, 國慶尚南道昌原府尹 신석린(申錫麟))이다.

19)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95쪽.

지에 해당된다.

이후에 작성된 방위청 「가덕도 국관유지 경계도」<sup>20)</sup>(1909.08.10)도 면을 살펴보면 관유지, 민유지, 학교부지, 육군용지, 해군용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가덕도의 거의 모든 토지가 일제에 의해 점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해군작전 제1 계획(요령)」,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한일의정서」, 「육군성 군용지 조사요령」 등 일제가 규정한 여러 조항 및 요령을 빌미로 군용지의 무단점거 및 점탈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국유지 및 관유지는 무상으로 영구 수용하고 민유지는 강탈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영구적인 군사기지의 건설과 함께 군용지를 빙자한 무자비한 토지 수탈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림 2〉 가덕도 국관유지 경계도  
(출처: JACAR, 「築城本部鎮海灣要塞用地収用の件」, Ref.C03022985600)

## 2. 통감부 주도의 군항 건설과 군항 경계 확장

일제의 진해군항 건설에 대한 의도는 강점 이전부터 드러나고 있었다. 1876년 2월 3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즉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sup>21)</sup>으로 인해 부산 이외의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되었고, 조

20) JACAR, 「築城本部鎮海灣要塞用地収用の件」, Ref.C03022985600

21)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 중 일부,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

선 연안의 해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해양 측량을 공식적으로 허용 받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군사작전을 위한 상륙 지점을 마음대로 정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일제의 정치적,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다수 내포된 것이었으며, 일본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은 이후 군항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군항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시기는 대한제국의 국권이 존재하던 시기였으므로 한국 관리가 진해만 일대의 군항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을 임용함에 있어 일본통감부에서 특정한 친일위원으로 선정, 일제의 의도대로 군항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06년 8월 29일자 『창원항안(昌原港案)』을 보면,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창원감리서리(昌原監理署理) 김서규(金瑞圭)에게 내린 훈령에 “진해만 군항 예정지를 조사함에 있어 일본통감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위원으로 실지 입회하여 지형 조사 후에 군항경계를 수립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1906년 9월부터 1909년 7월 31일까지 약 3년에 걸친 『승정원일기』의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의 임용과 해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여기서 나타나는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은 친일파 관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한성부윤 박의병과 창원부윤 이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의병<sup>23)</sup>은 군용지 조사국장,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

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22) 각사등록 『창원항안(昌原港案)』(1906.08.29.), “(중략) 鎮海灣軍港豫定<sup>호</sup>과 諸般遵守事項의 關<sup>호</sup>第三十一號訓令과 要塞地帶取締規則施行에 關<sup>호</sup>第三十三號訓令은 竝當遵辦<sup>호</sup>려니와, 右軍港境界는 一依別紙圖面<sup>호</sup>야 日本統監府에서 特定<sup>호</sup>委員으로 實地立會<sup>호</sup>야 調査地形後에, 樹立界標<sup>호</sup>야 劃定地域<sup>호</sup>를 專로貴監理의 委員을 命<sup>호</sup>고, 官報掲載<sup>호</sup> 圖面을 另附訓令<sup>호</sup>니, 照諒施行後, 形止馳報<sup>호</sup>이爲可(중략)”.

〈표 4〉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장 및 조사위원의 임용과 해임

날짜	내 용
1906.09.08	전 참리관(參理官) 신석린(申錫麟), 거제 군수(巨濟郡守) 이교승(李敎承), 웅천군수(熊川郡守) 윤영옥(尹潁鈺)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에 임명
1906.10.04	한성부윤(漢城府尹) 박의병(朴義秉)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장에 임명
1906.12.28	창원부윤(昌原府尹) 이기(李琦), 거제 군수(巨濟郡守) 고희준(高羲駿)을 경상남도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에 임명
1907.03.06	한성부 참서관 김우현(金宇鉉)을 진해만 군항지조사위원에 임명
1909.07.31	전 참리관(參理官) 신석린(申錫麟), 전 거제군수 이교승(李敎承), 전 웅천군수 윤영옥(尹潁鈺), 전 한성부참서관(參書官) 김우현(金宇鉉), 전 거제군수 고희준(高羲駿), 전 창원부윤 이기(李琦)는 경상남도 진해만(鎭海灣) 조사 위원을 해면

원으로 정이품(正二品), 한국 훈이등(韓國勳二等)과 일본 훈삼등(日本勳三等)의 훈장을 받은 자로 1906년에 평양 군용지 조사위원, 경기 철도 조사위원,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원장으로 임명, 단 3개월 만에 3개의 직책을 거쳐 1907년 임시군용철도용지조사국장(臨時軍用鐵道用地調査局長) 등 일제의 군용지 및 철도 수용과 관련한 요직을 도맡았다. 박의병의 약력에 기록된 군용지 조사국장,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원의 실적으로 받은 ‘일본 훈삼등(日本勳三等)’의 일본 훈장이야말로 군용지 수용 및 철도부지 수용이 친일파들에 의해, 일제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sup>24)</sup>

앞서 언급한 1906년 8월 29일자 『창원항안(昌原港案)』의 훈령 즉, “일본통감부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한 위원”이란 항목에 의거하여 1906

23) 박의병(朴義秉) (1852.03.14.)(『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24)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32쪽 참조.

년 9월 8일자에 창원감리(昌原監理) 이기(李琦)<sup>25)</sup>가 회신하였으며, 석달 후인 12월 28일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를 통해, 일제가 대한제국의 친일파 관리들을 활용하여 일제의 의도대로 단시간에 군항조사를 마치고 군항을 건설하여 식민지화를 빠르게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로 이기(李琦)가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원으로 임명된 지 불과 이틀 후인 『창원항안(昌原港案)』(1906.12.30)에서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출장비명세서를 보고한 문건이 있다. 군항조사를 목적으로 웅천군과 거제군의 출장에서 사용한 내역을 정리한 것<sup>26)</sup>으로 출장과 관련이 없는 항목인 맥주, 지궤련, 신발(마혜)과 같은 품목이 눈에 띄고 있다. 심지어 군항조사 출장비 내역 중 단가가 2환(圓)인 찬합과 인력거, 맥주, 지궤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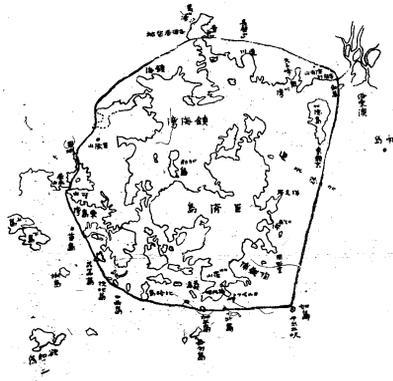
25) 이기(李琦) 역시 1908년 4월 27일 일본 훈사등(日本國勳四等) 훈장을 수령한 바 있다.

26) 창원부윤 이기(李琦)의 거제-웅천 군항조사 출장비 명세서 내역(1906.12.30)은 다음과 같다.

금 액	품 목	비 고
金四圓	饌盒二匣價	찬합 2갑
金一圓五十錢	埠頭至人力車費來往	부두 인력거비 왕복
金一圓三十三錢	麥酒六瓶價	맥주 6병
金四十四錢	紙捲烟五匣價	지궤련(담배) 5갑
金一圓二十錢	巡檢書記使令 麻鞋四部價	순검서기사령 마혜(신발) 4켤레
金五十錢	巡檢一人, 使令一名, 熊川郡至, 下陸船費	순검 1명, 사령 1명, 웅천군 도선비
金一圓十四錢	巡檢二人, 書記一人, 使令一名食費	순검 2명, 서기 1명, 사령 1명 식비
合下十元十一錢	熊川郡來往下	웅천군 왕래
金四圓	饌盒二匣價	찬합 2갑
金一圓三十三錢	麥酒六瓶價	맥주 6병
金二十八錢	紙捲烟三匣價	지궤련(담배) 3갑
金一圓十四錢	巡檢二人, 書記一人, 使令一名食費	순검 2명, 서기 1명, 사령 1명 식비
合下八圓二十五錢	巨濟郡來往下	거제군 출장비
共合十八圓三十六錢。(18圓36錢)		

마해 4결레 등 사용내역을 보면 당시 이기(李琦)가 군용지 조사위원으로 파견을 나갔던 웅천군 가덕도의 토지와 가옥 보상금이 밭이 두락(斗落)당 2환(圓) 논이 6환, 가옥이 2환 50전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맥주 12병 가격이 가옥 1칸의 가격인 셈이다. 이기(李琦)의 출장비명세서가 작성되었던 이 시기는 을사조약 이후 백성들의 민가와 토지를 빼앗고 장악하려는 일제의 식민 야욕들로 인해 민심의 원성이 자자한 때였다. 일반 백성들이 집과 땅을 잃고 힘들어하는 보고서들이 속속 보고되는 가운데 일본 통감부가 지정한 친일 성향의 진해만 군항지 조사위원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지방관리가 사용한 출장비 품목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일파 관리에 의해 일본의 의도대로 조사된 진해만 군항경계는 1907년 12월 12일 내무대신 임선준(任善準)의 고시 「경상남도 진해만 군항경계 도면 개정 및 준수사항(慶尙南道鎮海灣軍港境界圖面改正及遵守事項)」<sup>27)</sup>에서 최종 설정되었다. 그러나 고시된 진해만군항 경계는 이미 일본에 의해 고시내용이 전부 결정된 사항을 대한제국의 관보로 통보한 것일 뿐이었다.<sup>28)</sup>

1906년 8월 1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진해만 군항지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시 사항」<sup>29)</sup>을 보면 “진해만군



〈그림 3〉 진해만 군항예정 지역도 (1906.0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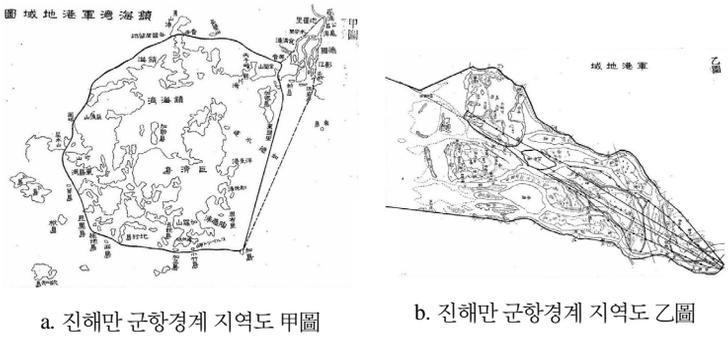
(출처: 「한국황제의 진해만과 영흥만의 군항사용 재가」)

27) 『관보』 제203947호(1907.12.12)

28)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37쪽.

항예정지를 점선으로 표시하고, 점선 이내의 지역을 군항에 개정, 추가 하면서, 군항지역 내에서는 외국인에게 토지나 가옥, 기타 부동산 등을 매각, 교환, 양도, 전당(典當) 잡히거나 허가 없이 매도(賣渡)함을 금지 할 것”을 한국 측에 통보하고 있다. 5일 후인 1906년 9월 1일자 <그림 3> 진해만 군항예정지역도와 같이 별다른 수정 없이 일본 측이 결정한 내용대로 고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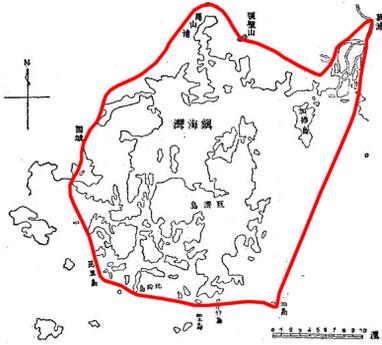
이후 진해만군항 경계는 1907년 12월 12일 내무대신 임선준(任善準)의 고시 『경상남도 진해만 군항경계 도면 개정 및 준수사항(慶尙南道鎭海灣軍港境界圖面改正及遵守事項)』<sup>30)</sup>에서 영역이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1906년 9월 1일 고시된 진해만군항경계도면을 재차 수정한 것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개정 및 준수 사항을 고시하면서 군항경계 지역을 설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4> a.진해만 군항경계 지역도 갑(甲)의 기존의 군항예정지에서 점선 지역, 즉 b.을(乙)에 해당하는 지금의 부산시역 낙동강 하구언(河口堰) 일대가 추가되면서 해군대포사격



<그림 4> 진해만 군항경계 지역도 (1907.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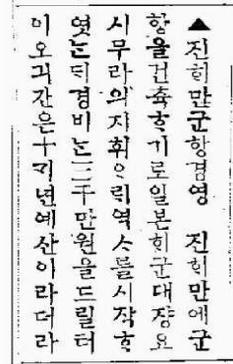
(출처: 『경상남도 진해만 군항경계 도면 개정 및 준수사항』)

29) 『내부래거안(內部來去案)』, 『진해만 군항지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지시 사항』(1906.08.16)  
 30) 『관보』 제203947호(1907.12.12)



〈그림 5〉 진해군항경계  
수정도면(1911.01.16)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제112호)



〈그림 6〉 진해만  
군항경영(1911.08.09)

(출처: 『신한민보』)

장이 설치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강점기로 접어들어 일제는 확장된 군항 영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한편, 진해군항의 시설을 확장해 나간다.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12호(1911.01.16)에서는 「진해군항경역의 건(鎭海軍港境域ノ件)」을 공포하고 있는데, 이는 1911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그림 5>에서 나타나듯 1907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마산포 전체가 추가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직후인 1911년 4월 1일에는 ‘일본칙령 제452호’에 따라서 쓰시마와 대한해협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다.<sup>31)</sup>

1911년 8월 9일자 『신한민보』의 기사 “진해만 군항경영”에 의하면

진해만에 군항을 건축하기로 일본해군대장 요시무라의 지휘 아래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경비는 삼천만원을 드릴티오 기간은 십개년에 산이라더라

31)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66쪽.

라는 내용으로 군항공사는 총 삼천만원의 경비와 10년의 공사기간이 결정되어 군항건설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군항 경계가 일제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결정되었으며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 Ⅲ. 진해만요새의 구축과정과 진해만요새사령부의 통제

#### 1. 러일전쟁기의 포대건설

일제는 대륙으로 확장하는 일제의 영토를 보호하고 이권을 확보하며, 대륙으로 향하는 작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 남해안에 견고한 육해군의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진해만의 방비를 강화하고, 부산을 육군의 상륙지로 지정<sup>32)</sup>하고 있다.

일제는 한말의 최초 진해만요새 구축으로부터 강점 초기까지 수많은 요새를 건설하였다. 이 기간의 구축사업은 애초 러일전쟁의 발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후 러일전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식민지화를 달성한 이후 대륙진출까지 노리는 전초작업으로서의 의도도 깔려 있었다. 같은 시기에 도쿄만을 비롯해서 쓰시마, 시모노세키,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에 포대를 건설했고, 만주 지역의 경우는 뤼순(旅順), 다롄(大連) 등지에도 포대를 건설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진해만과 영흥만 등지에 포대를 구축하면서 대대적인 요새건설을 시작하였다. 진해만요새를 설치한 주요 목적은 당시 일본 육군이 대본영 연합함대의 근거지로 진해만 일대를 사용함으로써 육·해군 합동으로 러시아 발틱함대를

32) JACAR, 「요새정리방침안에 관한 건(要塞整理方針按に関する件)」, Ref.C0203038 0500

격파하여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함이었다.<sup>33)</sup>

〈표 5〉 ‘요새정비기간’에 의한 포대건설현황

구분	포대명	착공날짜	준공날짜	
요새 건설기	저도포대	포대	1904.08.25	1904.12.20
		비포(備砲)	1937.10	1937.12
	외양포포대	포대	1904.08.22	1904.12.20
		비포(備砲)	1937.10	1938.01
		보조건설물		1938.02
요새재정리기	장자등포대	1924.10.11	1930.10.30	
요새 재수정 계획기	장자등제2포대	1934.05.17	1935.12.31	
	장자등제3포대	1938.06.20	1939.8.15	
	지심도포대	1936.07.10	1938.01.27	
	절영도포대	1938.06.20	1939.02.28	
	기장포대	1937.07.05	1939.03.31	

일제는 한말부터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에 의해 기존 요새의 편성 및 배치를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요새정리 방침을 새롭게 규정, 발표하게 된다. 새롭게 요새정비에 관한 ‘요령’을 수립하여 ‘요새정비기간’<sup>34)</sup>으로 구분하였다. 부산 및 진해만 일대는 그 중 요새건설기, 요새재정리기, 요새재수정계획기에 해당되며, 각 기간 별로 건설된 포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7>은 1918년 10월

33)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49쪽.

34) 아사미 조호지(淨法寺朝美), 『일본축성사』, 原書房, 197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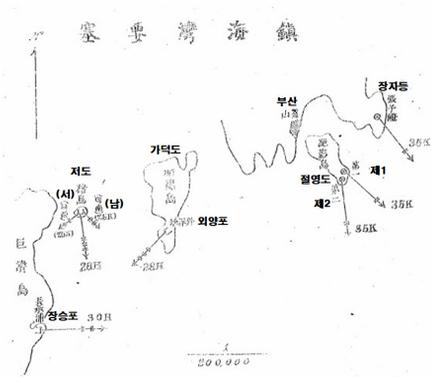
구분	배 경
요새건설기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요새정리기	제1차세계대전
요새재정리기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
요새수정계획기	태평양방비제한구역 정비
요새재수정계획기	해군군비제한조약 파기

2일에 작성된 진해만요새의 포대 위치<sup>35)</sup>가 표시된 도면으로 진해만요새 산하의 여러 포대가 부산 해안가 전역과 거제도 부근까지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요새건설기는 러일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한국의 식민지화 및 대륙진출의 전초작업으로 요새를 건설한 시기로 저도포대, 외양포포대가 대표적이다.

둘째, 요새재정리기는 일제가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에서 체결되었던 태평양방비제한조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해의 군항경제지역을 확장한 시기이다. 러일전쟁의 승전 이후 점차적으로 대륙을 향해 세력을 확장해나갔던 일제를 견제하기 위해 개최된 워싱턴군축회의로 인해 일제의 군진지 구축이 잠시 담보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체결된 태평양방비제한조약에 의해 군진지 및 포대 등의 신설이 중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기존의 진해만요새 임무 외에 쓰시마요새와 더불어 부산해협을 엄호하는 새로운 임무를 위해 장자등 제1포대를 건설하였다.

셋째, 요새재수정계획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포대를 건설하였다. 지심도포대를 비롯하여 장자등 제2, 3포대, 절영도포대, 기장포대 등을 건설하여 부산 및 진해만 일대를 철저히 요새화하였다. 이 시기에 설치된 포대의 주요 목적은 절영도(絶影島, 현재의 영도) 남단부터 쓰시



〈그림 7〉 진해만요새 포대위치  
(출처: JACAR, 『요새정리의 건』, Ref.C02030098200)(1918.10.02)

35) JACAR, 『요새정리의 건(要塞整理の件)』, Ref.C02030098200

마 북단의 우니시마(海栗島)까지의 해상 48km를 아우르는 포대를 구축하고 대한해협을 제압함과 동시에 일본과 한국, 양쪽의 해상수송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진해만요새의 주 업무인 부산항을 엄호하는 임무도 있었다.<sup>36)</sup>

부산 및 진해만 일대를 장악한 일본군은 아마지 미치노부(山路通信) 소좌를 지휘관으로 한 진해만요새포병대대를 구성하여 1904년 12월 13일 대대본부 제1중대가 거제도 저도에, 12일 제2중대가 가덕도 외양포에 상륙한 후 진해만 방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2월 20일에는 저도의 대대본부가 외양포로 이전하게 되었다. 1905년 4월 21일 러일전쟁이 개전된 이후 전시체제를 위해 급하게 편성된 유수(留守) 제4사단<sup>37)</sup>에서 진해만요새사령부가 편성되어 5월 7일에는 외양포에 상륙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본영 산하의 연합함대 근거지가 된 진해만요새는 육군 소속의 진해만요새사령부와 진해만요새중포병대대를 설치하고, 해군 소속의 진해요항부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소규모 병력인 제2중대가 위치하던 외양포가 대규모 전투부대인 진해만요새사령부로 거듭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령부’로 거듭났다는 점은 외양포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들어서고 약 8개월간 유지되었던 바를 기념하기 위해 외양포의 포대진지 입구에 일본군이 건립한 「사령부발상지(司命部發祥之地)」 표지석이 자리하고 있다.<sup>38)</sup> 표지석의 전, 후면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기존의 진해만요새에 쓰시마요새와 함께 부산을 엄호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장자등 제1포대를 건설하였다.

37) 유수(留守) 제4사단은 오사카 소제 제4사단사령부 소속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주차(駐紮) 등 전쟁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조직이다.

38)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56쪽.



〈그림 8〉 외양포 포대의 진해만요새사령부 「사령부발상지」 표지석

(전면)

司令部發祥之地  
 明治三十八年四月二十一日  
 編成下令  
 同年五月七日 外洋浦 上陸

(후면)

昭和十一年六月 建立

표지석의 전면을 보면 1905년(메이지38년) 4월 21일에 편성 명령을 받아 같은 해 5월 7일 외양포에 상륙하여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발상된 곳임을 기록하고 있다. 후면은 1936년(쇼와11년) 6월에 본 표지석을 건립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새 건설을 담당한 조직은 일본 육군성 산하의 군사시설 중 요새 및 산하 포대건설을 전담하는 축성부이다. 요새 구축의 최초 계획단계부터 준공 후 인수까지의 행정절차는 참모총장, 육군대신, 축성부분부장, 각 지부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축성부는 이와 같이 공사의 준비 단계부터 착공부터 준공 이후 요새의 인수까지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른바 요새 구축공사 즉, 전쟁과 관련된 포대 건설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군사 요충지의 선점과 최단기간 공사의 완공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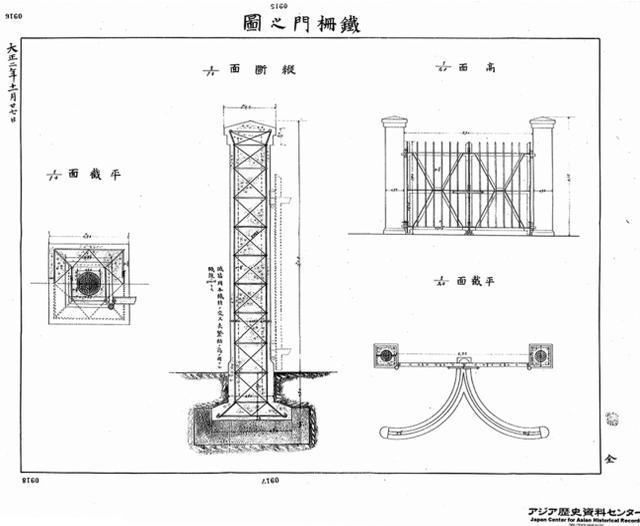
러일 전쟁을 대비하던 시기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시간에 한반도에 군사시설을 건설하여 요새화하기 위해 일제는 ‘요새 건설실행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설계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한반도의 식민화를 꾀한 것이다.

일제는 요새건설공사를 긴밀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축성부 내에 요새건설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대의 위치, 무기의 종류, 비포(備砲)의 수를 결정하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요새건설실행위원장의 직책은 현지의 지리와 실제 포대공사에 대한 내용 즉, 무기 및 비포 관련 사항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축성부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었다. 이는 업무의 효율을 높여 포대공사의 빠른 진행 및 완료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사례로 ‘건설설계요령서’를 들 수 있다. 이는 전쟁과 관련된 무기 및 포대의 건설 목적에 맞도록 공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모듈화하고 있다. 현재 건설공사의 시방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제는 이러한 설계요령서를 작성 한 후 해당 공사가 시작될 때 각 요새 및 포대별로 하달하여 주변 지역의 포대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하였다. 일종의 모듈화를 통해 군사시설을 시공하기 때문에 시행착오 없이 최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건설된 지심도포대(1938년 1월 27일 준공)와 대마요새(對馬要塞)의 쯔쯔자키포대(豆酸崎砲台)의 서치라이트 보관소(1939년 1월 준공) 뿐만 아니라 대마요새의 사오자키포대(棹崎砲台)(1938년 03월 준공) 관측소가 ‘건설설계요령서’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그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다.

가덕도 및 저도 포대의 경우 「저도 및 가덕 전등기관사 울타리문 교체 의 건(猪島及加德電燈機關舍柵門模樣替の件)」<sup>39)</sup>의 문건에서 전등기

39) JACAR, 「저도 및 가덕 전등기관사 울타리문 교체의 건(猪島及加德電燈機關舍柵門模樣替の件)」, Ref.C02031629600



(그림 10) 저도 및 가덕 전등기관사 울타리문 교체관련 설계요령서 (1913.12.04)  
 (출처: JACAR, 『猪島及加徳電燈機關舎柵門模様替の件』, Ref.C02031629600)

관사의 목재 문이 점점 노후화된 관계로 수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지에 첨부된 설계요령서 및 도면을 통해 철근비돈주철(鉄筋比頓柱鉄)로 울타리문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여러 군사시설 등을 모듈화 및 도면화하여 재료, 디자인,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결정한 형태인 건설설계요령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포대 등을 건설하여 요새화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치밀한 방법들을 통해 대륙으로의 진출 및 한반도 식민화를 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해만요새의 포대공사를 담당한 조직은 진해만군항 축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제3임시축성단과 임시육군건축지부였다. 군항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는 축성부 관할로 넘겨져서 축성부 본부 임시파출소, 축성부 진해만지부, 축성부 진해만지부, 축성부 진해만출장소 등의 순으로 공사를 주관하게 된다.<sup>40)</sup>

부산 및 진해만요새의 기간별 공사담당 조직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이를 보면 제3임시축성단은 전쟁을 대비하여 ‘임시’로 편성되었던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부산·진해만요새의 기간별 공사담당 조직

날 짜	공사담당 조직
1904.08	제3임시축성단
1910.04 - 1920.09.30	임시육군건축지부
1922.09 - 1923.04	축성본부부 임시파출소
1923.04 - 1932.08.08	축성부 진해만지부
1937	축성부 진해만출장소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요새화를 담당한 조직은 축성부 진해만지부로 축성부 진해만지부의 위치는 <그림 11>과 같이 부산부 대신정 176번지(釜山府 大新町 176)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자리로 추정되며 축성부 진해만지부의 사무실은 <그림12>와 같이 일식기



<그림 11> 육군축성부  
진해만지부의 위치  
(소재지: 부산부 대신정 176)



<그림 12> 축성부 진해만지부와  
지부장 사토 료(佐藤隆)  
(출처: 『부산대관』)

40) 이지영·서치상,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진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19-3(통권 70호) 참조.

와 잇기 및 비늘판벽의 관사로 이 시기의 일반적인 군사시설의 관사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제는 1904년 제3, 4, 5임시축성단을 편성하여 진해만과 영흥만, 뤼순(旅順), 다롄(大連) 등지에 군사요충지에 우선적으로 요새를 건설하여 대륙으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해 임시요새를 건설하였다. 진해만요새는 공병 소좌 마츠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의 지휘 아래 제3임시축성단이 파견되어 8월 중순 가덕도와 저도에 상륙, 1905년 1월에 포대공사를 완료하게 된다.<sup>41)</sup>

일제는 단기간에 요새화를 진행하기 위해 포대공사를 일괄 청부업자에게 청부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러일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 진해만 일대를 최우선 선점하기 위한 임시요새를 단기간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제3임시축성단은 공사를 일괄해서 청부업자 나카타니 히로키치(中谷廣吉)<sup>42)</sup>에게 청부하여 포대공사를 완공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건설된 저도포대 및 외양포대에는 약 4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한편 저도포대와 외양포대공사를 담당한 청부업자 나카타니는 일본 육군성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들 나카타니 하루오(中谷晴夫)가 육군성 화공창연구부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후 육군성에서 나와 합자회사 나카타니구미(中谷組)의 중역을 역임 하

41) 일본외무성편, 『러일전쟁시 한국에서 제국의 군사경영의 건(日露戰役時 韓國에서帝國의軍事經營一件)』, 電送 제856호, 제12호 발송일 1904.08.03

42) 나카타니 히로키치(中谷廣吉) (1874~ )

1906년 조선총독부 청사와 더불어 관사건축 및 용산사단사령부 청사 건축도 청부받아 담당했다. 이후 조선철도공사의 지정청부인이 되어 철도공사 청부를 도맡아 했으며, 1935년 12월 16에 준공이 된 동해남부선의 기장-좌천간(機張-佐川間)공사, 부산부영중앙도매시장(釜山府營中央都賣市場) 등의 건설에도 참여했다. 『조선공로자명감(朝鮮功勞者名鑑)』에서 그를 ‘남한토목 건축계의 장로’라 칭하였고, 『조선청부연감(朝鮮請負年鑑)』에서는 ‘남조선토목건축회의 중진(重鎮)’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는 등 여러 기록으로 보아 육군성과 청부관련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인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카타니 히로키치는 진해만요새의 외양포 및 저도포대를 4개월 만에 준공한 이후 다시 제3임시축성단의 공사 일체를 청부하여 축성부 단장 마츠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와 함께 원산 및 영흥만의 호도포대 공사를 위해 함경남도로 진출하였다. 또한 나카타니 히로키치의 친동생인 나카타니 진조우(中谷稔藏) 역시 호도포대의 매점을 운영<sup>43)</sup>하는 등의 여러 사례로 육군성 혹은 축성부 단장 마츠이와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음이 추정 가능하다.

한편 진해만요새와 함께 건설되었던 영흥만요새에 제3임시축성단이 포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한국인 역부를 강제 동원<sup>44)</sup>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1905년 3월 5일 함경남도 영흥군수 홍순욱(洪淳旭)이 외부 대신에게 발신한 공문인 『영흥군 고령사 미도리(永興郡 古寧社 味島里) 및 덕원군 제도(德源郡 諸島) 등지에서의 일본군의 포대 설치 및 그에 따른 역부동원에 관한 보고』<sup>45)</sup>를 보면 한국인 동원에 관한 내용이 나타

43) 나카타니 진조우(中谷稔藏)는 나카타니 히로키치의 친동생으로 1903년 함경도 원산의 호도(虎島)요새 구축 당시 축성단(築地團)의 주보(酒保) 즉, 매점을 운영한 기록이 나타나는 등의 자료로 미루어보아 형제가 함께 축성단과 관련한 수주에 각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44) 한말 일제의 포대건설에 동원된 한국인 역부의 임금 지불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는 현재까지 밝혀진바 없다. 다만, 이 시기 일제의 군용지 무단점탈 및 토지와 가옥 수용 등이 당시 형식적인 보상에 그쳐 강압적인 점탈과 다름없었음을 미루어 보아 설령 일본군 측에서 일정 금액의 임금 지불이 실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제의 한국인 역부 동원은 이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일반 백성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행태로 이에 본 고에서는 포대 건설공사에 동원된 한국인 역부의 동원형태도 강제적인 동원으로 추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45) 『함경남북도래거안(咸鏡南北道來去案)』 0002권, 奎17983-v.1-2(1905.03.05)  
『永興郡 古寧社 味島里 및 德源郡 諸島 등지에서의 日本軍의 砲台 설치 및 그에 다른 役夫動員에 관한 報告.』 “本里는 人家가 120戶이고 田畠은 모두 山田으로서 居民이 모두 柴商으로 業을 삼았으나 兩년에 걸쳐 大飢을 당해 居民의 半이 渙散했는데 2

나고 있다. 본 문건에는 1905년 2월 12일 일본군 대장과 병사 100여명이 군막을 설치하고 초막 10여 채를 신축한 이후 일본 역부 100여명이 표목(標木)을 세우고 길을 정비하여 뒷산에 포대를 설치하기 위기 위해 한국인부 수천 명이 영흥군에 도착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1905년 당시 영흥군에 도착한 엄청난 규모의 한국인부가 어떠한 경로로 동원되었는지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나, “원산주재일본국병참사령관의 지휘 아래 덕원감리에게 인부동원을 명령”하고 “한국인 역부 3,000명을 모집하라는 요구에 역부 200명을 모집하여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축성부 단장 마츠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가 공병 및 포병 143명과 철공·석공·목수 등 50여명을 호도(虎島)포대 구축을 위해 주둔 중이며 덕원군 제도(諸島) 포대 구축 시에도 한국인 인부를 계속 보내라고 해당 단장이 요구해 왔음”을 미루어 보아 한국정부를 이용한 반강제적인 인력동원이 주를 이루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축성부 단장인 중좌 마츠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가 청부업자 나카타니와 함께 공사를 준공한 바 있는 외양포포대와 저

---

월 12일 日本大將이 兵丁 100여명을 데리고 本里에 와서 허다한 雜物封을 下陸하더니 17일부터 本里西里에 軍幕을 설치하고 家材木을 배로 운반해 와 草幕 10여 處를 새로 지으면서 日本役夫 100여명을 데려와 本洞의 사방에 標木을 세우고 新開山路를 밤낮으로 修治하며 장차 砲台를 本洞의 뒷산에 설치한다 하고, 또한 我國人夫 數千名이 本里에 來到하여 居民이 모두 김을 먹고 도망간 자가 반이나 된다고 永興郡古寧社 味島里 尊位 鄭雲鳳 등이 보고해 왔음. 이에 鄉長 및 巡校를 따로 정하여 居民을 曉諭하여 安堵하게 하였고 해당 鄉長의 보고를 들은 즉 하나같이 해당 洞의 보고와 같은데 食品과 機械 等物을 元山港에서 小船으로 매일 2, 3차례 운반하고 山野를 측량하여 田畝과 民家, 山麓을 조사하여 本價로 해당 民에게 出給할 것이라고 함. 이어 元山駐在日本國兵站司官 指揮 및 德源監理 申珩模의 訓令內에 人夫 3000名을 本郡에 分定하였으니 즉시 出給하라고 하여 役夫 200名을 모집하여 보냈으나 일이 토지와 관계가 있고 소홀히 할 수 없어 2월 22일 郡守가 직접 味島里 虎島里에 가서 形편을 살펴본 즉 日本國築團長陸軍歩兵 中佐 松井庫之助가 工兵 및 砲兵 143名과 鐵工·石工·木手 등 50여명을 데리고 味島里에 머물기에 그 연유를 묻은 즉 장차 虎島 諸處에 砲台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했음. 또한 德源郡 諸島에도 역시 砲台를 설치하며 人夫를 계속 보내라고 해당 團長이 요구해 왔다는 내용.”

도포대 역시 영흥만요새의 호도포대와 동일한 체계로 진행되었으므로 한국인 역부를 강제적으로 동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청부업자인 나카타니구미(中谷組)에게 포대 건설공사를 청부하여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역부를 무리하게 공사에 동원하여 차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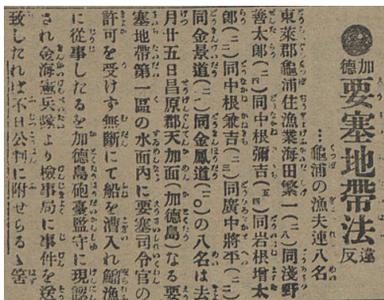
이처럼 군사시설인 포대 건설공사에 자행된 한국인 역부의 동원은 당시 일제의 군용지의 무단점거 및 민유지 수용 등의 여러 사례 등을 미루어보아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했을 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의 부재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허나 본 포대 건설공사들이 진행된 시기가 강점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국정부를 통한 한국인의 동원이 확인된 것은 강점 이후 건설된 수많은 군사시설의 축조 역시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아닌 한국인의 강제동원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2. 진해만요새사령부의 주민 통제와 검열

진해만요새사령부는 부산·진해만 일대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요새지대법(要塞地帶法)’을 지정하여 요새의 구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고, 기밀보호업무를 핑계 삼아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해 식민지 약탈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진해만요새사령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편성된 한국주차군 예하 부대로 부산 및 진해만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배치되었다. 요새지대는 요새 주위 일대의 일정 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1899년 제정, 공포되어 요새지대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요새지대법은 요새 군사기밀의 보호 및 방어영조물의 보안을 위해 만든

법이다. 각종 엄격한 제한 및 규제를 통해 요새 내의 각종 포대 및 부속 기관의 위치, 성능, 형식, 종류, 병비(兵備), 강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요새지대법은 1895년 3월 30일자 칙령 제39호로 요새사령부조례를 제정하여, 요새의 규모에 따라 1~3등 요새로 구분했다. 이후 1899년 7월 15일 법률 제105호로 요새지대법을 추가 제정하였다.<sup>46)</sup>

진해만요새사령부는 과거 진해만방비대가 기밀보호를 목적으로 주민들을 군별로 엄격하게 다스린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일상생활 즉, 문학, 영화, 신문, 잡지, 음반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도 등 모든 출판물을 검열하기 시작했다. 일제가 규정한 요새지대 내에서는 시설물의 촬영이나 모사(模寫)가 일절 금지되었고 가옥이나 공장의 신축, 증축, 묘지의 신설이나 이장, 산림의 조성이나 벌채, 어로나 수렵까지 모두 금지되었다. 실제로 가덕도 및 인근 주민들의 본업이 대부분 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로나 수렵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처럼 일제는 군사 기밀보호를 빌미로 일반 시민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해 생활에 제약과 억압을 가했다.



〈그림 13〉 가덕도 요새 지대법 위반 (1914.12.19) (출처: 『부산일보』)



〈그림 14〉요새지대법 위반자가 속출 (1925.09.19) (출처: 『부산일보』)

46)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77~78쪽 참조.



진해만은 갈수록 확대되어 부산방면은 일광면, 거제도방면은 소매물도 해상까지 요새지대의 영역이 넓어졌다.

진해만요새사령부는 1904년 최초 편성된 시점부터 일반 주민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검열과 통제가 더욱더 강화되었다. 특히 요새지대법, 군사기밀 보호법, 치안 유지법 등 일제가 제정한 각종 법령을 빌미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도 제약을 가하고 탄압했던 것이다.

#### IV. 맺음말

본 논문은 러일전쟁에 임박한 일제가 대륙으로의 진출과 한반도 식민화를 목표로 부산을 요새화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제는 해상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 및 진해만 일대에 영구적인 군사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군용지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존재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일의정서』를 비롯한 일제가 규정한 여러 조항 및 요령을 빌미로 군용지의 무단점거 및 점탈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국유지 및 관유지는 무상으로 영구수용하고 가덕도 및 저도의 민가등급표 및 여러 문건들을 통해 민유지는 강탈에 가까운 금액으로 보상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진해만 군항 예정지를 일본 통감부의 주도하에 친일파 관료들을 조사위원으로 지정하여 군항지를 조사, 군항 경계를 수립 계획하였다. 대한제국의 관보를 통해 수차례 변경되며 확장된 진해 군항 경계는 실제로는 일제에 의해 그 고시 내용이 사전에 결정되었으며, 이후 대한제국의 관보로 통보된 것일 뿐이었다.

49) 이지영, 앞의 논문, 2021, 80쪽 참조.

부산 및 진해만의 요새화 과정을 살펴보면,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의 식민지화 및 대륙진출의 전초작업으로 ‘진해만요새’를 신설하게 된다. 과거부터 눈여겨왔던 군사적 요충지에 일명 ‘요새’를 구축하고 그 산하에 수많은 ‘포대’ 및 여러 군사시설을 건설하였다. 이후 일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따라 요새의 정비 및 확대를 위한 ‘요새정리기간’을 시기별로 규정하여 대대적인 포대공사를 착수하였다. 부산 및 진해만 일대의 요새는 ‘요새건설기’에 해당되며 그 산하의 외양포포대와 저도포대가 이에 해당된다.

일제가 구축한 군사시설 중 요새의 건설공사를 담당한 조직은 육군 축성부이다. 러일전쟁 발발 이전에 완공된 진해만요새의 외양포포대 및 저도포대는 1904년 8월에 임시 편성된 제3임시축성단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요새를 단기간에 건설하기 위해 ‘요새건설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설계요령서’를 제작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산 및 진해만의 빠른 점령을 위해 요새화를 진행하였다. 외양포 및 저도포대공사가 완료된 이후 제3임시축성단의 업무는 축성부 진해만지부로 이관되었으며, 축성부 조직은 일제 패망까지 유지되었다.

러일전쟁이 임박하여 요새 건설을 단기간 내에 완료해야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제3임시축성단의 포대 건설공사 일체를 청부업자인 나카타니 히로키치(中谷廣吉)가 독점으로 청부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영흥만요새 구축 당시 제3임시축성단의 마츠이 쿠라노스케(松井庫之助)가 대한제국 정부를 통해 한국인 역부를 동원한 문건으로 미루어 보아 축성단장 마츠이와 청부업자 나카타니가 함께 공사를 준공한 외양포포대, 저도포대 건설공사에도 한국인 역부가 강제 동원되었음이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일제는 러일전쟁이 임박한 이 시기에 대한제국의 국권이 존재함에도 군용지를 무단으로 점탈하고 각종 포대를 건설하는 등 부산

및 진해만 일대를 요새화하여 장악하였다. 이 일대의 요새화 이후 이른바 ‘요새지대법’을 지정하여 요새의 구역을 점점 확장해 나갔으며, 진해만요새사령부는 군사 기밀보호업무를 빌미로 일반 주민들의 사회활동 전반에 관한 검열과 통제를 통해 식민지 약탈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여 강점 이전부터 토지를 점탈당하고 삶을 터전을 잃어버렸던 한국 주민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만 갔다.

## | 참고문헌 |

### 1. 사료

『慶尙南北道來去案』(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各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各司謄錄 近代編』(국사편찬위원회).

議政府『奏本』(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2. 저서 및 논문

김정명, 『조선주차군역사』, 日韓 外交資料集成別冊, 巖南堂書店, 1966.

김승·양미숙, 『신편 부산대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I, II』, 일월서각, 1988.

조 건,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한국주차군』, 역사공간, 2020.

차철욱외, 『가덕도 외양포 일본군사령부 기지 조사보고서』, 강서문화연구원, 2001.

권구훈, 「러·일전쟁 이후 駐韓日本軍의 편성 및 운용」, 『군사』 44, 2001.

김유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김경남, 「한말 일제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항도부산』 28, 2012.

신주백, 「조선 주둔 일본군(‘조선군’)의 성격과 역할」, 『동양학』 39, 2006.

이지영·서치상,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부산 및 진해만 균용지 수용」, 『한국건축역

사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_\_\_\_\_, 『부산·진해만 일대의 일본군 요새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_\_\_\_\_, 『只心島の 일본군 포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07.

\_\_\_\_\_, 『일제강점기 한반도 요새건설을 담당한 築城部 공사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_\_\_\_\_, 『일제강점기 외양포의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에 관한 연구-『密大日記』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_\_\_\_\_, 『일제강점기 외양포포대의 시설물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_\_\_\_\_,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군막사 및 포대지지의 구축과정과 건축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19-3(통권 70호), 2010.

\_\_\_\_\_, 『只心島の 일본군사시설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2, 2013.

이지영,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부산·진해만요새의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정민환, 『한일합방 전·후기 일본군의 군사시설 축조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日本外務省編, 『日露戰役時 韓國에서 帝國의 軍事經營 一件』, 1906.

日本外務省編, 『日本外交文書』 제 1~45권, 日本國際聯合協會, 1949.

中森勉, 『明治・大正期における陸軍省營繕組織』, 『月刊文化財』, Vol.452, 2001.05

淨法寺朝美, 『日本築城史』, 原書房, 1971.

十原剛, 『日本の要塞』, 學習研究社, 2004.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JACAR) <https://www.jacar.go.jp/>

| Abstract |

The Japanese Imperialism of Entry into the Continent at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Fortification of *Busan* and *Jinhae* Bay

Lee, Ji-Young

Japanese imperialism expanded naval ports and made them into fortresses in order to use these areas as strategic points for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ntry into the continent.

Imperialist Japan constructed firstly the military installations of *Jeo-do* (猪島) and *Oiyang-po*(外洋浦) against the Russo-Japanese War. After the moving of the artillery headquarters into *Masan*(馬山) in 1911, these installations had been maintained for the defense of Busan and Jinhae Bays.

The study looked into the procedure of forcible occupation by Japan, involving the background of the designation and forcible accommodation of military reservations, and forced eviction by the purchase of land. Concerning Oiyang-po, carefully planned compensation for land and forced eviction was made according to the ‘Table of Folk Houses Rating(民家等級表)’ (1905).

It is recorded on the documents, so the amount of construction for each construction can be identified and reasons and timing for each construction project, the budget or repair expens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re recorded. In addition, the layout and current status of the artillery positions are compared through drawings and ‘design tactics’(設計要領書) attached to the annex. Data on the purpose of each military facility, weapons, and

attached facilities were also available.

In 1904, the artillery headquarters and position were constructed by the 3rd Temporary chookseong-dan (第3臨時築城團) under the command of Matsui , a military engineer officer. The executional constructions were accomplished by the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It is the 'Chukseong-bu' (築城部, the Department of Castle Construction) that supervised the construction of fortresses. Also, the study reviewed the administrative flow as well as the installation process of the Chukseong-bu of the Department of the Army.

A Japanese contractor 'Nakatani Hirokichi'(中谷廣吉) was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for the quick completion of the Oiyang-po and Jeo-do artillery position. As the Pacific War approached, numerous caves were dug in key military sit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rtillery. Many Koreans were forced to work in the cave, making it very difficult for their lives.

**Key Words :** Japanese Colonial Period, *Oiyang-po*, *Jeo-do*, naval port, Japanese Military Installations, Chukseong-bu(築城部), The fortress Command of *Jinhae* Bay (鎮海灣要塞司令部)